서비스산업발전TF
23-1-3

보건의료 서비스 분야
수출 활성화 추진방안

2023. 6. 5.

관 계 부 처 합 동

요 약

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 [요약]

1 추진배경

□ (시장 현황)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은 '21년 10.4조 달러에서 '26년 13.7조 달러 규모로 연평균 6.3% 성장 전망

○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'21년 820억 달러(109조 원)에서 '25년 1,820억 달러(240조 원)로 연평균 9.7% 성장 전망

* **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등** 주요 경쟁국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**공격적 유치 정책** 추진 중

□ (한국의료 경쟁력) 암·이식 등 선진 의료기술 대비, 상대적 낮은 가격, 첨단 의료장비·IT 기반 시스템 등 높은 국제 경쟁력 보유

2 주요 성과 및 한계

□ **(유치)** '09년 6만 명으로 시작하여 '19년 50만 명 유치로 역대 최고 실적, '09~'22년 동안 한국을 방문한 환자는 총 327만 명

○ (성과) 코로나19 발생으로 '20년 외국인환자 수*가 급감하였으나, '22년 24.8만 명으로 '19년(49.7만 명) 대비 50%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

* **('09) 6만** → ('15) 30만 → **('19) 50만** → **('20) 12만** → ('21) 15만 → **('22) 25만**

○ (한계) 엄격한 출입국절차, 지역·진료과 편중, 낮은 인지도 등 외국인환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필요

□ **(진출)** '16년 '의료 해외진출 신고제' 시행 이후 '22년 12월 기준 총 28개국 162건(누적)의 해외진출 신고

○ (성과) 신고 건수는 '16년 10건 → '22년 37건으로 지속 증가

* **('16) 10건** → ('17) 14건 → ('18) 20건 → ('19) 22건 → ('20) 25건 → ('21) 34건 → **('22) 37건**

○ (한계) 산업규모 파악 어려움, 수요 맞춤형 지원 부족,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간 협력 축소 등으로 해외진출 기반 마련 필요

➲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및 K-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

3 비전과 목표

비전

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'대한민국'

목표

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	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
<외국인환자 유치> '22년 25만 명 → '27년 70만 명	<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> '22년 37건 → '27년 70건

분 야	4대 전략
1.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	① 출입국절차 개선 ② 지역·진료과 편중 완화 ③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④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
2. 우수한 K-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	①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 ②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③ ICT 기반 K-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④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교류·협력 강화

4 주요 추진과제

1.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

□ 출입국절차 개선

○ **(우수 유치기관 확대) 전자비자 신청 권한**이 있는 **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 확대(27개 → 50개 이상) 및 인센티브 부여**

- **대형종합병원(300병상 이상)**이 지정 신청 시 **가점 부여**

○ **(제한 완화) 일반 유치기관** 동시 운용 가능한 **비자 발급 쿼터 상향**(5건 → 10건), **간병인·보호자 범위 확대, 제출서류 완화***

* 배우자·직계가족 유무, 질병의 시급성 등 고려하여 형제·자매까지 가족 범위 확대,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 면제

○ **(신속발급 지원)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** 등을 통해 **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 단축**(재외공관 2~3주 → 전자비자 3일)

□ 지역 · 진료과 편중 완화

○ **(지역 특화 의료·관광)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**가 **의료·관광**을 함께할 수 있도록 **의료서비스**와 **관광·산업 인프라**를 연계한 **지역 특화 사업*** 확대

* 웰니스·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(문체부, 30억),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(복지부, 10억)

○ **(고부가가치 환자 타게팅)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**를 발생시키는 **VIP 환자, 장기체류환자 등**에 대한 **맞춤형 모델 발굴·홍보**

○ **(맞춤형 전략)** 주요 발생질환,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**수요·공급을 고려**하여 **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*** 및 환자 송출 등 **협력 추진**

* 「주요 진료과목 등 수요·공급을 고려한 국가별 유치 전략」 연구용역 추진('23)

○ **(진료분야 다양화) 중점 진료분야**로 한국이 잘하는 **성형·피부과** 외 **중증·복합성 질환** 및 **한의약 확대*** **등 투트랙 전략 수립**

* 한의약 유치 대상 국가 확대('21년 일본, 중국 중심→ '23년 중동, CIS, 동남아 등), 유관기관(관광공사, 한의약세계화추진단 등),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

□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

○ **(평가·인증제 활성화)** 유치 의료기관 '평가·지정제'를 **'평가·인증제'로 변경*, 절차 간소화**** 등을 통해 **인증 유치기관 확대 추진**

* (의료해외진출법 '22.12월) 유효기간 2년 → 4년, 조건부인증 1년, 교육·연수 혜택 도입

**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

○ **(전문인력 양성)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**를 위한 외국인환자 **전담 간병인***(Caregiver, 케어기버) **및 전문 의료통역사**** **양성 확대**

* 다문화가정 외국인, 은퇴한 간호사·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, 간병이론, 환자 위생·영양·안전관리 실습 등 교육과정 개발·운영

** 태국어 등 의료통역 대상언어 다양화 및 기초과정 신설 등('23년 60명 양성)

○ **(원스톱 지원 강화) 입국 전부터 귀국 후**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**원스톱 채널 구축*** 및 **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全주기 상담 기능 강화**

* VISIT KOREA(문체부) 홈페이지와 MEDICAL KOREA(복지부) 홈페이지 간 원클릭 연결

○ **(사전·사후관리) ICT 기반 사전상담·사후관리 지원사업 확대, 비대면진료 제도화*** 및 **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 추진****

* (現) 의료인 간 '원격협진'만 가능 → (後) 「의료해외진출법」개정을 통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시 국내법상 허용되도록 법적 기반 마련

**「의료해외진출법」 시행령 제15조는 외국인환자 사전상담·사후관리를 시작하기 전 시·도지사에게 국내 의료인, 국외 의료인, 환자 정보 등을 알리도록 규정

□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

○ **(K-Culture 활용 홍보 확대)** 재외공관 등 **유관기관 협의체 구성** 및 **K-컬처(K-pop, 드라마 등)**를 활용한 **온·오프라인 홍보* 활성화**

* (온라인) 시·공간 제약 없이 한국 의료관광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, 메타버스 솔루션(한국의료홍보관 개설, '24~), SNS 등 활용한 홍보 확대

** (오프라인) 메디컬코리아국제컨퍼런스, 한국의료관광대전 등 국내외 주요행사 개최 및 참여

○ **(위상 강화) 나눔의료 사업*** 및 **외국 의료인 연수프로그램 확대**** 등을 통해 **한국 의료 홍보 및 현지 유치 기반 마련**

*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초청하여 무상 진료('11~'22년 28개국 총 418명)

** (무상 온라인) '20~'22년 45개국 486명, (유상) '13~'22년 의사 238명, 치과 21명

- **민간 자체 수행 중인 나눔의료·연수 실태 파악**을 통해 **홍보 연계** 추진

2. 우수한 K-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

□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

○ **(신고제 개선)**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**신고대상을 확대***하고 신고 시 **제출서류 간소화, 신고기관 현행화**를 통한 **실태관리 강화**

* 「의료해외진출법」 개정 추진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 컨설팅, 보건의료종사자 파견 및 의료시스템 진출 기관 등 포함

○ **(우수기관 인센티브)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**하여 **'(가칭)K-헬스케어' 마크* 부여** 및 **거점협력센터 지정·지원**

* 유치 의료기관 평가·인증제(KAHF)와 브랜드를 일원화 방안 검토

○ **(투자확대)**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**신용평가 모형 개발*, 펀드 이용률 제고** 및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하여 **추가 펀드 결성 여부 검토**

* 병의원 신용평가 모형 개발 관련 정책연구 용역 추진('23.下~)

□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

○ **(진출지원 플랫폼 운영) 국제시장 동향, 국가별 법·제도** 관련 **정보 제공** 및 **진출신고**까지 가능한 **통합포털 및 웹 운영***

* 현재 운영 중인 국제의료정보포털(GHIP)과 의료해외진출종합포털(KOHES) 통합운영, 통합포털 내 온라인 상담센터 개설 등

○ **(수요 맞춤형 인력양성·지원)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·분석**을 통해 **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**하고 **맞춤형 교육* 및 컨설팅 지원****

* 現 직역(의사, 간호사, 의료기사, 경영관리) 중심 교육과정 → 後 의료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추가 지원

**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(GHKOL) : 법, 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이외, 의료기기, ICT 등 연관산업, 홍보·마케팅 분야 컨설팅 추가 확대('23년, 82명 → '24년, 100명)

○ **(동반진출 확대)** 의료기관과 함께 의약품, 의료기기, ICT 플랫폼 등 **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 발굴** 및 **지원* 확대**

*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('23~)

□ ICT 기반 K-의료서비스 수출 촉진

○ **(ICT 의료시스템 수출) 중점 전략국**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**주요 핵심 분야** 중심 **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** 및 **지원** 강화

- **진출 전략국 선정, 핵심분야 패키지 개발*, 시범사업 실시**** 등 추진

* 원격의료·진단(비대면 진료), AI 기반 진단 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등

** 진출 지역·국가의 시장 수요와 ICT 관련 지원정책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지원하고, 평가 우수기관은 다년도(1+1) 지원으로 사업 연속성 제고

○ **(실증지원) 유망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진출**을 위해 북미 등 **해외 주요 의료기관**과 **유효성 검증** 등 **실증지원 사업*** 신설

*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서비스 등 유망 기업에게 실증비용 지원(1~1.5억 원)

** (성공사례) '22년 국내 스마트청진기 기업 美국방성 해외실증 연계 및 성능확인서 발급(공신력 높은 기관의 수출 레퍼런스 구축 성과)

○ **(우수기업 인증)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***를 도입하고, **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**에게 **가산점 부여** 추진

* (혜택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, 공공기관 우선구매, 우수 조달제품 지정 등

□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 교류·협력 강화

○ **(정부 간 협력 강화)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**을 중심으로 **네트워크 구축**을 통한 **의료 해외진출 기반 마련** 및 **국가별 진출전략 수립***

* 중점협력국(베트남, UAE, 사우디 등)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 진출전략 수립('23.下)

○ **(거점공관 협력사업)** 주요국 **거점공관***을 선정, **보건의료분야 협력 포럼·수출상담회 등을 개최**하여 **한국의료 홍보** 및 **수출 기회 제공**

* '23년 총 12개국(14개 공관)에서 협력사업 추진, 공관당 최대 40백만원 지원

○ **(유관기관 협력 확대)**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하여 **ODA 사업**을 통해 '의료기관+의약품·의료기기·의료시스템' **동반진출 선도사업 발굴***

*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ODA 디렉토리북 사업화 지원(방글라데시), 아세안 7개국(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)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('23~)

상세본

순 서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성과 및 한계 ····· 2

Ⅲ. 비전과 목표 ····· 6

Ⅳ. 세부 추진과제 ····· 7

1.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····· 7

2. 우수한 K-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 ····· 14

Ⅴ.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····· 19

Ⅰ. 추진배경

□ **(시장 현황)** 글로벌 의료서비스* 시장은 '21년 10.4조 달러에서 '26년 13.7조 달러 규모로 연평균 6.3% 성장 전망**

*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 규모로 제약, 의료기기 및 화장품 제외

** ('21) 10.4조 달러 → ('23) 11.2조 달러 → ('25) 12.8조 달러 → ('26) 13.7조 달러 (Fitch Solutions, 2023)

○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'21년 820억 달러(109조 원)에서 '25년 1,820억 달러(240조 원)로 연평균 9.7% 성장 전망*

* Glasgow Research & Consulting Report, '22.8월

- 싱가포르*, 말레이시아** 등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중

* **(싱가포르)** 전자비자 활성화, 의료기관 해외 홍보비 지원, 해외환자 진료수입 세제 혜택, 국제환자서비스센터 설립 등('19년 50만명 유치, 출처: Yusof Ishak Institute)

** **(말레이시아)** 전자비자 활성화, 의료관광객을 위한 표준운영절차(SOP) 개발, 장기체류 상품 개발, 의료브랜드 홍보 등('19년 120만명 유치, 출처: 의료관광위원회)

□ **(한국의료 경쟁력)** 선진 의료기술, 가격*, 신속한 진단·치료, 첨단 의료장비·IT 기반 시스템 등 높은 국제 경쟁력 보유

* (국민 1인당 암 치료비) '19년 기준 한국 29만 원 Vs OECD(22개국) 34만 원 Vs 미국 67만 원으로 낮은 수준('22.5월, 미국의사협회 저널)

○ 주요 5년 암 생존율*, 장기이식 성공률** 등은 세계 최고 수준

* 최근 5년('16~'20) 암환자의 생존율은 71.5%로 나타났으며, 주요 암(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) 생존율은 미국·영국·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

** 성모병원 세계 첫 골수이식 후 간이식 성공, '93년 이후 간이식 총 1,300건('22.6.3. 보도), 아산병원 '92년 이후 30년간 간이식 8,000건, 성공률 98%('22.11.14. 보도)

○ '23년 미국 주간 매거진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*에 한국 의료기관 다수 포함

* 서울아산병원(29위), 삼성서울병원(40위), 서울대병원(49위) 등 18개 병원 포함

➲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및 K-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

Ⅱ. 성과 및 한계

◇ (유치) 누적 환자 300만 명 돌파('09~'22년), 국내 의료관광 지출액 약 3조 331억 원 달성('19년)

□ **(성과)** '09년 6만 명으로 시작하여 '19년 50만 명 유치로 역대 최고 실적, '09~'22년 동안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환자는 총 327만 명

○ (유치실적) 코로나19 발생으로 '20년 외국인환자 수*가 급감하였으나, '22년 24.8만 명으로 '19년(49.7만 명) 대비 50%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

* **('09) 6만** → ('15) 30만 → **('19) 50만** → **('20) 12만** → ('21) 15만 → **('22) 25만**

< 연도별 외국인환자 수 및 의료지출액 추이 >

○ (유치기관 수) '09년 1,547개에서 '16년 4,997개로 증가하였으나, 등록요건 강화*('16.6월)로 감소 후 다시 증가하여 '22년 총 2,921개

*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부가, 유효기간 신설(3년)

○ (국가·진료과) 유치국은 '09년 139개에서 '22년 192개*로 증가, 진료과는 내과통합, 성형·피부과 중심**으로 외국인환자 유치

* ('22년) 미국 17.8%(4.4만 명), 중국 17.7%(4.3만 명), 일본 8.8%(2.1만 명), 태국 8.2%(2만 명), 베트남 5.9%(1.4만 명) 순

** ('22년) 내과통합(22.3%), 성형외과(15.8%), 피부과(12.3%), 검진(6.6%), 정형외과(3.9%) 등

○ (경제적 성과) '19년 외국인환자·동반자의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3조 331억 원*, 이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약 5.5조 원 수준**

* ('18년) 2조 1,837억 원 → **('19년) 3조 331억 원** → ('21년) 7,280억 원(산업연구원)

** ('18년) 3조 9,301억 원 → **('19년) 5조 5,981억 원** → ('21년) 9,463억 원(산업연구원)

□ **(한계) 엄격한 출입국절차, 지역·진료과 편중, 낮은 인지도 등 외국인환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필요**

○ **(엄격한 출입국절차)** 외국인환자 입국 시 **비자 발급 어려움*** 호소

* '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상위 13개 국가 중 7개 국가 비자 발급 필요(중국, 베트남, 몽골, 카자흐스탄, 필리핀, 우즈베키스탄, 인도네시아)

○ **(지역·진료과 편중) 지역 간 불균형 심화***, 성형외과·피부과 등 **특정 진료과 편중****

* (서울·경기·인천) '19년 80.1%→'22년 78.2% / (그 외) '19년 20.0%→'22년 21.8%

** (내과통합) '19년 19.2% → '22년 22.3% / (성형·피부) '19년 29.7% → '22년 28.1%

○ **(환자 편의성 부족)** 사전상담·사후관리 제약, 중증질환자의 간병인 동행, 언어 장벽 등으로 **유치산업 경쟁력 저하**

○ **(낮은 인지도) 한국의 경제규모, 문화(K-Culture), 의료수준 등 높은 국제 경쟁력**에 비해 **메디컬코리아 브랜드 글로벌 인지도는** 낮은 편

< 2022년 외국인환자 한국 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>

□ **(조사대상) 외국인환자 1,200여 명**

* 대상국 :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·CIS, 몽골, 중동, 동남아시아

□ **(조사결과) 종합만족도 89.2점**

○ **(추천의향) 94.6%**가 **한국의료**를 **타인**에게 **추천** 의향 존재

○ **(선택경로) 가족 및 지인 추천 65.7%**, 인터넷, SNS 온라인매체 45.3%, 본국 병원·의사 추천 및 병원 홈페이지 40.8% 순

○ **(선택 시 고려 요소) 의료기술 53.0%,** 한국 의료기관 신뢰 48.0%, 치료 결과/효과 43.4%, 의료장비 및 시설 39.3% 순(중복 有)

○ **(한국 문화 영향) 한국문화 경험**의 한국의료 선택 영향은 **49.7%**

○ **(메디컬코리아 브랜드 인지율) 38.9%**

○ **(한국의료서비스 장단점)** 타국 대비 강점은 의료진 의료기술 46.6%, 단점으로는 의료 장비 및 시설 21.7%이 가장 높음

○ **(본국 귀환 시 우려)** 진료 후 회복관리 39.5%, 한국 의료진과의 연락 31.2%, 처방약 통관 절차 25.4% 등 순

※ 한국 의료진과의 연락을 우려하는 환자 중 89%, 진료 후 회복관리를 우려하는 환자 중 79.7%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

◇ [진출] 해외 의료기관 개설 28개국 162건 달성('16~'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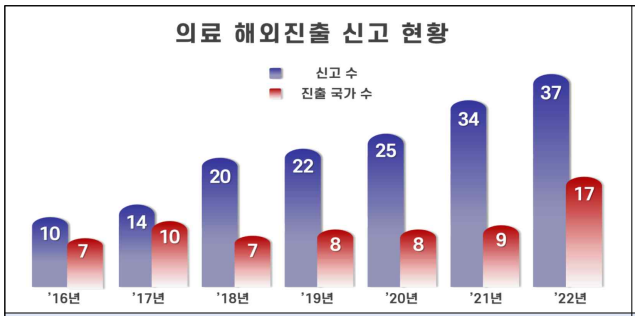
□ **(성과)** '16년 '의료 해외진출 신고제' 시행 이후 '22년 12월 기준 총 28개국 162건(누적)의 해외진출 신고

○ (신고 건수) 신고 건수는 '16년 10건 → '22년 37건으로 지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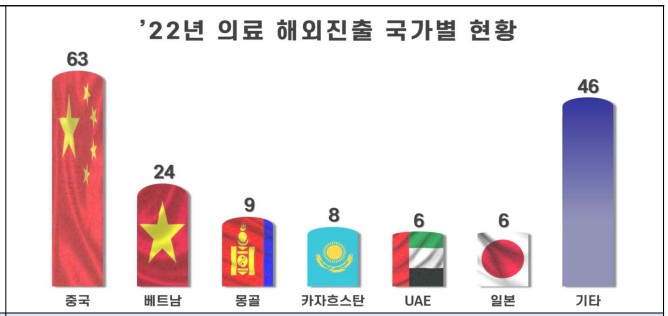
* **('16) 10건** → ('17) 14건 → ('18) 20건 → ('19) 22건 → ('20) 25건 → ('21) 34건 → **('22) 37건**

○ (국가) 인적, 물적 교류가 빈번한 **중국, 베트남, 몽골, 카자흐스탄이** 주요 진출국가이며 아시아·중동·미주 등 **다양한 지역으로 진출**

< 의료 해외진출 현황 >



의료 해외진출 신고 건수, 진출국가 수



의료 해외진출 국가별 현황

○ (진출유형) 의료기관 **개설운영**(30.9%) 이외에도 **운영컨설팅**(37.7%), 종사자 파견(14.8%), 교육 및 의료시스템 진출 등 **다양한 형태로 진출**

< 의료 해외진출 유형별 진출 현황('16~'22) >

구분	의료기관 개설·운영	수탁운영	운영 컨설팅	종사자 파견	의료지식 지원교육	의료기술· 정보시스템 이전	계
신고 건수 (비율 %)	50 (30.9)	12 (7.4)	61 (37.7)	24 (14.8)	8 (4.9)	7 (4.3)	**162 (100)**

< 의료 해외진출 유형별 대표사례 >

의료기관 개설·운영		운영컨설팅, 의료지식 지원 교육 및 정보시스템 이전	수탁운영 및 종사자 파견
<비에프어린이치과> 베트남 호치민 한국형 치과병원(3개) 운영 ('21년~)	<나누리병원> UAE Saudi German Hospital 內 척추관절병원운영('21년~)	<(주)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>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국가 지정검사기관 선정 ('20.3월~)	<서울대병원> UAE SK Speciality Hospital 수탁운영 ('14년~)

□ **(한계) 의료기관 해외진출**은 일부 성공사례는 있지만 **진출 유형에 맞는 수요 맞춤형 지원 부족**으로 **성과 제고 어려움** 존재

○ **(산업 현황)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시행('11년~)** 이후, 진출 유형, 규모 및 현황 파악 등을 위해 **신고제 도입·운영('16년~)**

- 의료기관 개설·운영, 컨설팅, 종사자 파견 등 **다양한 형태로 진출**하고 있으나 신고대상은 **의료기관 개설자로 국한***하여 **현황 파악 어려움**

* (의료해외진출법 제4조)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만 복지부장관에 신고

- 매출액 등 전체 **산업 규모 파악**과 **성과분석 어려움**으로 **육성 지원 한계**

* **(영국) 정부 주도** 의료 해외진출 지원, 총 25개국 이상, **약 3.3조 원 이상의 수출 달성**('16~'17) (Healthcare UK Annual Review 2019 to 2020, 2020),
(오스트리아) VAMED 社 총 98개국 1,000개 이상 프로젝트 수행, **약 3.4조 원 매출**('21)

○ **(진출 인프라 미흡)** 국제 의료시장에 대한 **전문 지식** 및 **정보 부족, 현지 법·제도 및 입찰 전문인력 부족** 등 **의료 해외진출 인프라 미흡***

* 의료기관 등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은 현지 의료법령, 제도 및 문화와 한국 의료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

○ **(해외진출 다양성 부족)** 진출 유형이 **의료기관 개설 운영** 및 **운영 컨설팅** 등에 집중

-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**ICT 기반 의료시스템** 분야는 **해외 적합 의료기관 발굴이 어렵고 네트워크 부족**으로 **진출 성과 저조**

○ **(G2G·민관협력 미흡) 코로나19**로 **국가 간 보건의료 협력***, **해외 민관협력사업이 축소**되어 **해외진출 기반 마련 시급**

* 국가 간 보건의료 협력 MOU 건수는 총 38건으로, 코로나19 이후 후속 협력사업 추진 등 축소

Ⅲ. 비전과 목표

비전

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'대한민국'

목표

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	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
〈외국인환자 유치〉 '22년 25만 명 → '27년 70만 명	〈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〉 '22년 37건 → '27년 70건

분야	4대 전략
1.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	① 출입국절차 개선 ② 지역·진료과 편중 완화 ③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④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
2. 우수한 K-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	①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 ②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③ ICT 기반 K-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④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교류·협력 강화

Ⅳ. 주요 추진과제

1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[해외→국내]

◇ 출입국절차 개선[법무부]

□ **(우수 유치기관 확대)** 전자비자* 신청 권한이 있는 **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 확대**(27개 → 50개 이상) **및 인센티브 부여**

○ **중증질환자 유치 지원**을 위해 **대형종합병원**(300병상 이상)이 **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** 지정 신청 시 **가점부여**

○ **유치 활동 지원**을 위해 **우수 유치기관** 대상 **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**(최대 3인 동반) 혜택* 부여

* 현재 부처별 총 21개 항목에 대해 출입국 우대 혜택 부여(고용창출 우수기업(고용노동부), 가족친화인증기업(가족친화지원센터), 모범납세자(국세청) 등)

□ **(비자쿼터 상향)** **일반 유치 의료기관**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**외국인환자 비자 쿼터 상향***(5명→10명)

* '22년 기준, 일반 유치기관은 입국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한 환자를 동시에 5명 이하로만 초청할 수 있으며, 1명이 본국으로 출국 후 추가 초청 가능

□ **(동반자 제한 완화)** **질병의 시급성** 등을 고려하여 **간병인·보호자 범위**를 **형제·자매까지 확대** 및 **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면제**

□ **(신속발급 지원)** **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** 등을 통해 **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 단축***

* (비자발급 소요기간) 전자비자 평균 3일 이내 Vs 재외공관 평균 2~3주

◇ 지역 · 진료과 편중 완화(복지부, 문체부)

□ **(지자체 특화 의료·관광)**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**지자체 모델 개발, 컨설팅, 홍보** 등 지원

○ **웰니스·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***를 구축하여 **관광자원 발굴, 기반 구축 및 홍보** 등 추진('23년 인천, 대구·경북, 부산, 강원, 전북, 충북, 30억 원)(문체부)

* (예) 치료(성형, 피부 등) 이후 웰니스 관광(식단, 스파, 마사지 등) 결합 서비스

○ **수도권 편중 완화***를 위한 **지역 특화 유치 기반 강화사업**** **비수도권 비중 및 지원액 확대**('23년 인천, 대구, 제주, 부산, 광주, 충북, 10억 원)(복지부)

*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유치 비중(%) : ('20) 76.5 → ('21) 72.9 → ('22) 78.2

** 지자체 의료·관광·산업 인프라 등 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 지원

□ **(고부가가치 환자 타게팅)** 연관 산업에 큰 **파급효과**를 발생시키는 **VIP 환자*, 장기체류환자 등**에 대한 **맞춤형 모델 발굴·홍보**(복지부)

* '19년 중동 환자 중 가장 고액의 진료비는 5억 6천만 원이며, 1억 원 이상 진료비 환자는 전체 환자의 약 5% 수준

< 고부가가치 환자 타게팅 사례 >

VIP 환자	■ VIP 환자 눈높이에 맞는 최고급 병실 및 맞춤형 식단, 1:1 전담 동시통역 24시간 제공, 보호자를 위한 특급호텔, 리무진 차량 등 숙박·교통·통신 예약 및 서비스, 맞춤형 프리미엄 관광코스 제공 등 ■ (사례) A 성형외과는 VIP를 위한 의전차량 리무진, 1:1 전담 동시통역 코디네이터 서비스, 외국인환자 전용 호텔 운영 등 제공
장기체류환자	■ 장기체류환자의 숙박, 차량, 통신 등 장기 사용을 고려한 패키지 특가 예약 서비스 제공, 중장기 여행코스 제공 등 ■ (사례) B 병원은 불임 치료 환자들 대상 주요 지역 호텔, 레지던스 등과 장기체류환자 유치 업무 제휴 협약을 맺어 특가로 예약 대행

□ **(전략 수립)** 주요 발생질환, 송출주체(국가, 보험사, 유치업체 등),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**수요·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**하여 **국가별 전략 수립***(복지부)

*「주요 진료과목 등 수요·공급을 고려한 국가별 유치 전략」 연구용역 추진('23)

○ 특히, **주요국 질환 발생 현황** 및 **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진료분야** 등을 분석하여 **국가별 주요 진료과목 매칭을 고려한 환자 유치** 추진

< 주요국 유망 진료과목 사례 >

	유망 진료과목	주요 고려사항
미국	**내과통합 (중증질환)**	· 미국에 비해 높은 가격경쟁력, 주요 5년 암 생존율 등 한국의 비교우위 의료기술 수준 고려 (출처: '22.5월 미국의사협회 저널, '19년 국가암 통계보고서)
중국	**산부인과**	· 산아제한 정책 완화, 산부인과, 난임·불임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, 중국 내 전문병원 부족 (출처: '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적용법령 조사 분석', 보건산업진흥원 '20.11월)
UAE	**내과통합 (중증질환)**	· 최근 4년간 방한 UAE 환자 진료 건수 중 중증질환(백혈병, 암, 뇌성마비) 비중 지속 증가, UAE 내 중증 의료서비스 취약 * '(18년) 15.9% → ('19년) 16.3% → ('20년) 20.5% → ('21년) 36.6%

□ **(진료분야 다양화) 중점 진료분야**로 한국이 잘하는 **성형·피부과 외 중증·복합성 질환 및** 한국 특유 **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 수립**[복지부]

○ 종양, 이식 등 **대표 중증 분야 치료사례, 한국 의료기술·의료기관** 등에 대한 **온·오프라인 홍보 지원** 및 **환자 송출 협력 추진***

* **(UAE)** 질환별(36개) 우수 의료기관 현황 전달 및 국비환자 송출 대상 의료기관 확대(현재 12개) 추진, **(오만)** 의료인 연수 대상 확대, 국비환자 송출 협력 추진 등

○ **기존 일본·중국** 중심에서 **중동*·CIS·동남아** 등 **대상 국가 확대**, 유관부처, 관광공사, 지자체 등과 **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**

* 중동은 전통·보완·대체의학을 건강관리 의료행위로 인정, 부유층 중심 시장 형성('16년 중동 4개국 보건의료 현황조사 및 한국의료기관 진출전략 수립, 보건산업진흥원)

- **문화(K-pop, 드라마)·교육(한의약정보)·관광** 등 접목한 **홍보체계 구축, 온라인 홍보관, 외국인 대상 국내 연수프로그램** 등 활용한 홍보 활성화

- **'한의약세계화추진단'**('21년 구성) 활용하여 **한의계 인사·전문가** 등과 **협력 강화**

◇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[복지부, 문체부]

□ **(평가·인증제 활성화)** 유치 의료기관 '평가·지정제'를 **'평가·인증제'로 변경***, **인센티브, 절차 간소화** 등을 통해 **인증 유치기관 확대 추진**[복지부]

* (의료해외진출법, '22.12월) 유효기간 2년 → 4년, 조건부인증 1년, 교육·연수 혜택 도입

< 유치기관 평가·인증제 >

	상세 내용
신청자격	■ 「의료해외진출법」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유치기관
평가기관	■ 의료기관평가인증원(주관: 보건산업진흥원)
평가기준	■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(유치실적, 전문의보유, 분쟁예방 등 49개 항목) ■ 환자 안전체계*(안전·감염관리, 진료체계 등 92개 항목) *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(49개), 환자 안전 체계(92개)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환자 안전 체계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대체하여 운영 중

○ 유치기관 교육·연수 등 **인센티브 확대** 통해 **유치기관 참여 제고***

* '16년 '유치기관 평가·지정제' 도입 후 '22년까지 지정기관은 최대 7개 기관에 불과

○ **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**(인증원) **시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**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**절차 간소화***

* 기존 KAHF 인증마크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(KOIHA)에서 발급하는 유치 의료기관 인증마크로 일원화하여 인지도 제고(美 JCI 사례)

□ **(전문인력 양성)** **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**를 위한 **전담 간병인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 확대**[복지부]

○ **중증·고령자 등이 보호자 없이도 입국 및 진료**를 받을 수 있도록 **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**(Caregiver, 케어기버) **양성***

* 다문화가정 외국인, 은퇴한 간호사·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, 간병이론, 환자 위생·영양·안전관리 실습 등 교육과정 개발·운영

○ **만족도 높은 통역 서비스 제공**을 위한 **전문 의료통역사* 양성 확대**

* (現) 고급과정으로 '23년 60명 양성(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러시아어 등) →
(後) 태국어 등 통역언어 다양화 및 기초과정 신설 등 의료통역 전문과정 세분화

□ **(원스톱 지원 강화)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상담·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 구축 및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기능 강화**[복지부, 문체부]

○ 외국인환자에게 필요한 **진료, 교통, 숙박, 관광 등 정보**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**원스톱 채널 구축***

* 교통·숙박·관광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VISIT KOREA(문체부) 홈페이지와 의료 중심 MEDICAL KOREA(복지부) 홈페이지 간 원클릭 연결을 통해 정보 접근성 제고

○ **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(2개소)***를 통해 한국 의료 안내, 의료분쟁 지원 등 **全 주기에 걸친 상담 서비스**로 지원 강화(유·무선 및 대면)

* 인천공항(한국의료관광센터와 통합)·서울 운영, 5개 언어(한·영·중·일·러) 지원

□ **(사전·사후관리) 방한 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**를 위해 **ICT 기반 사전상담·사후관리 확대**[복지부]

○ ICT 기반 **사전상담·사후관리 지원사업 대상 국가* 확대** 및 **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관**은 **차년도 지속 지원**** 추진

* (現) 베트남, 카자흐스탄, 중국, 몽골 등을 중심으로 사전상담·사후관리 지원사업 실시
→ (後) UAE 등 국비환자 송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사전상담·사후관리 국가 확대 추진

** '22년 우수사업인 성광의료재단(몽골, 부인과 질환)은 '23년 1억 원 지속 지원 예정

- **사전상담·사후관리 시 사전보고 의무 완화* 등** 개선방안 검토

* 「의료해외진출법」 시행령 제15조는 외국인환자 사전상담·사후관리를 시작하기 전 시·도지사에게 국내 의료인, 국외 의료인, 환자 정보 등을 알리도록 규정

○ **사전상담·사후관리 활성화 및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**를 위해 **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** 추진

- **「의료해외진출법」 개정**을 통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시 **국내법상 허용***되도록 **법적 기반 마련**

* 현재 「의료해외진출법」 상 사전상담·사후관리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만 가능

< 「의료해외진출법」 원격협진 관련 규정 >

【의료해외진출법】 제16조(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)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는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·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**국외에 있는 의료인**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(이하 "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
2.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·교육

◇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[복지부, 문체부]

□ **(K-Culture 활용 홍보 확대)** 재외공관 등 **유관기관 협의체 구성** 및 **K-컬처**(K-pop, 드라마 등)를 활용한 **온·오프라인 홍보 활성화**

○ **(협의체 구성) 재외공관, KOTRA, 해외문화홍보원 및 한국문화원, 보건산업체** 등과 **상시 협의체***를 구성하여 **민관협력사업 활성화**

* (한국보건산업진흥원) 민관협력 One-Stop 채널 및 상시협의체 운영('23~)

- **정부 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협력 수요 발굴, 한국의료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등**을 위한 **재외공관 사업 지원***[복지부]

* '22년 총 12개국(14개 공관)에서 협력사업 추진, 공관당 최대 40백만 원 지원

○ **(오프라인 홍보) 국내·외 주요행사 개최 및 참여**를 통한 **홍보 강화**

- **'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***'를 **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컨퍼런스**로 육성, **G2G·B2B 협력 등**을 통한 성과 창출[복지부]

* (Medical Korea 2023) 총 59개국 3,802명 참석(온라인 시청 총 10,159회), 4개국 보건부 장·차관 방한 및 양자면담 진행, 비즈니스 미팅 총 545건 달성('23.3.23.~24.)

- **주요국*** 대상 **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, 박람회 참석 등**을 통한 B2B·B2C 상담회, 홍보·상담부스 등 운영[문체부]

* '23년 카자흐스탄(4월, '22년 유치순위 8위) 몽골(하반기 예정, '22년 유치순위 6위)

○ **(온라인 홍보) 시·공간 제약 없이** 한국 의료관광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**홈페이지, 메타버스*, SNS**** 등 활용한 홍보 확대[복지부, 문체부]

* 메타버스 솔루션을 활용하여 가상공간 내 한국 의료 홍보관 개설 및 운영('24~)

** 한국 의료 강점·특색을 반영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(ex: 유튜브 「Heal We Go Korea(문체부)」 등)

< 의료관광 홍보채널 >

Healformation(한국의료 강점, 팁 등 안내)

Healtravel(K-pop 스타와 떠나는 여행)

□ **(위상 강화) 나눔의료 사업 확대** 및 **외국 의료인 대상 유·무상 연수프로그램 다각화**를 통해 우수한 **한국 의료기술 전파**[복지부]

○ **(나눔의료)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**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**무상으로 진료**하는 **나눔의료 사업*** **확대 및 홍보 강화**

* (지원실적) '11~'22년 28개국 총 418명 발굴 지원 / 지원 대상은 재외공관 등 추천을 통해서 선정('22년 우즈벡 9개월 심장병 환아 등 4명 지원(서울성모))

< 나눔의료 사례 >

몽골 환자(십자인대파열)

가봉 환자(구순구개열)

○ **(글로벌 의료연수 확대) 외국 의료인 대상 유·무상 연수프로그램 다각화**를 통해 **우수한 한국 의료기술 전파 및 현지 유치 기반 마련**

- **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***(무상) 및 **중동 4개국**(사우디, 쿠웨이트, 바레인, 오만)과 유상연수 협약을 통한 **임상교육 기회 제공****(KMTP, 유상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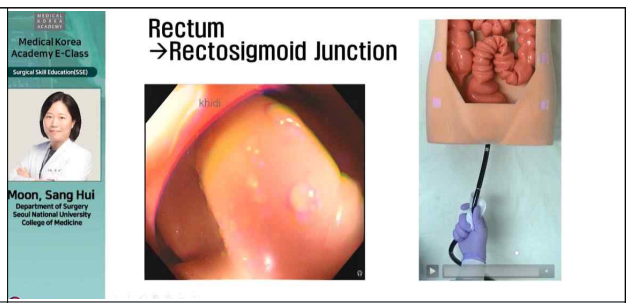
* 코로나19 이후 '20~'22년간 총 45개국 486명 수료

** (**K**orea **M**edical **T**raining **P**rogram) '22년 기준 의사 238명, 치과의사 21명 수료

- **학술교류회, 동문회 등 연수생 네트워크 강화, 정부 간 협력**을 통한 보수교육 인정, 유상연수 시행협약 체결 등 **신규 연수 수요 발굴**

< 한국의료 연수 사례 >

(오프라인) 로봇수술 연수



(온라인) 대장내시경 연수

○ **(민간 연계 확대)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중인 나눔의료*·연수사업 실태 파악**을 통해 **홍보 연계** 등 추진

* (사례) 인천 세종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나눔의료 건수는 '11~'22년 총 677건

2 우수한 K-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(국내→해외)

◇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(복지부)

□ **(신고제 개선)** 의료 **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**을 **확대**하고 신고 시 필요한 **제출서류** 및 **신고절차 간소화***

* 의료기관 개설허가증, 개설신고증명서 등 신고 구비 서류를 위탁운영기관(보건산업진흥원)에서 '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'을 통해 확인('23下~)

○ **(신고대상 확대)** 의료 해외진출 **신고 대상자**에 의료기관 개설자외 **컨설팅, 보건의료종사자 파견** 및 **의료시스템 진출 기관** 등 **포함***

* 「의료해외진출법」 개정 추진('23下~) →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 상법상 회사가 국외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컨설팅 등 해외진출한 경우(약 88건)도 체계적 관리·지원 가능

< 의료해외진출법상 신고대상 확대 >

현재	개선
■ **(해외진출 신고)**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	■ **(해외진출 신고)**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법 제2조제1호 각목*의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자 * 의료기관 개설운영, 수탁운영, 운영컨설팅, 종사자 파견 교육, 의료시스템 진출 등

○ **(신고기관 현행화) 의료 해외진출 운영현황** 및 **매출 성과 등을**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**해외진출 실태**를 **체계적으로 관리**

□ **(우수기관 인센티브)** 매년 **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**하여 **'(가칭)K-헬스케어' 마크*** **부여** 및 **거점협력센터 지정·지원**('24~)

* 유치 의료기관 평가·인증제(KAHF)와 브랜드를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

○ **(우수기관 지정)** 해외진출 신고 및 인력·수익 등 **증빙자료 제출** → **우수기관 선정***, **현판 부여** 및 **해외 진출사업 추진 시 가점** 등 혜택

* '23년 중 K-헬스케어 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 구성 등 추진

○ **(거점협력센터 지정) 성과평가를 통해** 우수 진출기관은 **해외진출 교두보**를 위한 국가·지역별 **'공공 거점협력센터'로 지정·지원***

* 해외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교육(세미나) 및 '현지국의 프로젝트 발굴-해외환자 유치' 선순환 기반 마련(기관당 1.5~2억 원 지원, 연 2개 기관 선정)

□ **(투자확대) 보건계정 모태펀드**를 활용하여 **의료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**

○ **해외진출 의료기관**에 맞는 **신용평가 모형 개발***, **펀드 이용률 제고**

* 병의원 신용평가 모형 개발 관련 정책연구 용역 추진('23.下~)

**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'**한국의료 글로벌 진출펀드**'(보건계정 모태펀드 제3호) 500억 원 조성·운용('15.4~'23.4) → 미국 헌팅턴 비치 등에 진출한 의료기관 등 3건 지원

○ **진출 수요** 등을 반영하여 **추가 펀드 결성 여부** 검토

<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분야 모태펀드 투자 현황 >

구분	투자기간	펀드 조성규모	복지부 출자액
K-Bio 신성장 펀드(6호)	'21.1월 ~ '25.4월	1,300억 원	150억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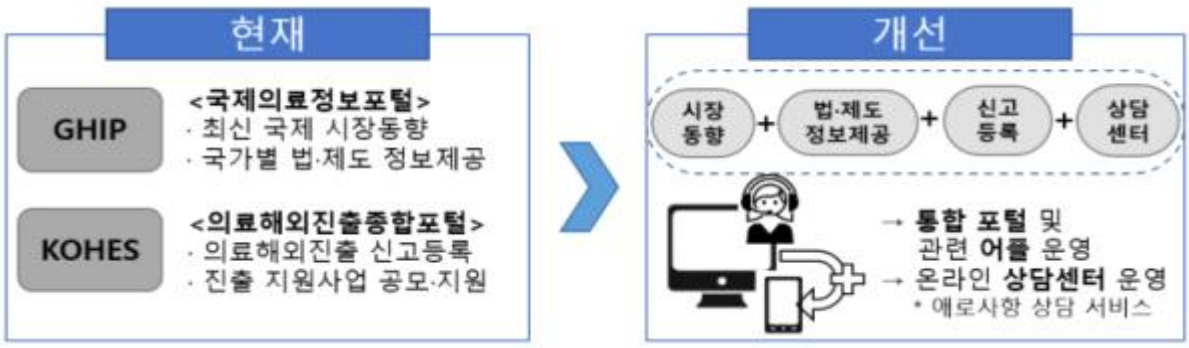
◇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[복지부]

□ **(진출지원 플랫폼 운영)** 국제시장 동향, 국가별 법·제도 관련 **정보 제공** 및 **진출신고**까지 가능한 **통합포털*** 및 **웹 운영**('24~)

○ **(통합포털 운영)** 현재 운영 중인 **국제의료정보포털(GHIP)**과 **의료해외진출종합포털(KOHES)**을 **통합 운영**하여 **정보 접근성** 제고

○ **(상담센터 운영)** 통합포털 내 **온라인 상담센터 개설**, **진출 희망국가 법·제도 안내** 및 **상담 서비스**(진출 애로사항 등) 제공

< 의료 해외진출 통합포털 및 웹 운영 >



□ **(수요 맞춤형 인력양성·지원)** 진출국가·진료분야에 따른 **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시행** 및 **인력지원**

○ **(인력수급 조사)** 의료 해외진출 분야 **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조사·분석**을 통하여 **인재 양성 프로그램 다양화**('24~)

○ **(맞춤형 교육지원) 진출국가·진료분야** 등 고려하여 **의료기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**(현지 법·제도, 외국어 등) 설계·지원

- 現 **직역**(의사, 간호사, 의료기사, 경영관리) **중심 교육과정(인재원)** 이외, **진출 의료기관** 특성에 맞춘 **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추가 제공**

○ **(글로벌 전문가) 해외 현지 법, 제도** 관련 **의료 해외진출 민간 전문가*를 활용**, 국가·분야별 맞춤형 **컨설팅 확대 지원**('24~)

*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(GHKOL) : 법, 회계 등 관련 분야 7년 이상 활동 및 자격을 갖춘 자로 '16년부터 운영 **('23년, 82명)** → 의료기기, ICT 등 연관산업, 홍보·마케팅 분야 **추가 확대('24년, 100명)**

○ **(국제입찰 전문성 향상)**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**국제입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** 및 **전문역량 강화 지원***('24~)

* KAIST 국제입찰&해외공공조달 관리과정(IGMP)을 벤치마킹하여, 국제조달시장 수요 맞춤형 기업 역량강화 교육지원

** (사례) ① 씨젠 및 진매트릭스 UNICEF 코로나19 진단키트 장기 공급 계약 체결, ② SK 바이오사이언스 PAHO(범미보건기구) 374억 원 수두백신 입찰 수주 등

□ **(동반진출 확대)** 의료기관 진출과 함께 의약품, 의료기기, ICT 플랫폼 등 **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 발굴** 및 **지원 확대**

* 의료기관과 연관산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경우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('23~)

** (사례) '21년 한국의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진출하여 원구 헬스센터 개원(한의원)시 의료기기, 한의약 건강보조제품 등 동반 진출·판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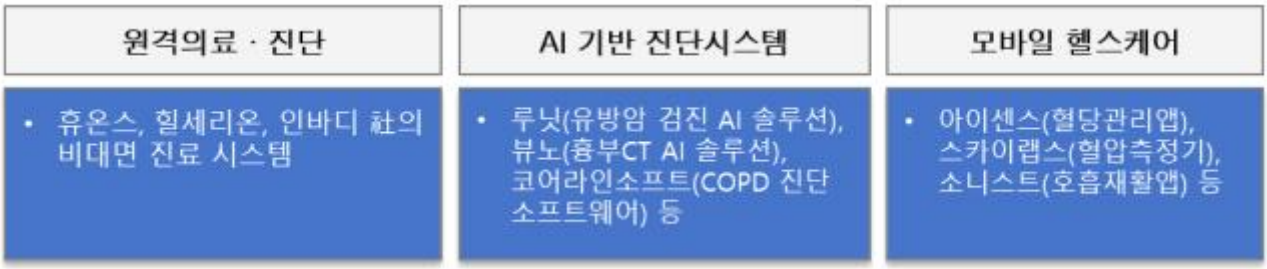
◇ ICT 기반 K-의료서비스 수출 촉진[복지부, 산업부]

□ **(ICT 의료시스템 수출) 중점 전략국**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**주요 핵심 분야** 중심 **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** 및 **지원** 강화[복지부]

○ **(전략국가 선정)** 진출국의 GDP 대비 1인당 의료비 지출 및 의료 수요 고려하여 '**ICT 중점전략국**' **선정,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**

○ **(핵심분야 지원) 원격의료·진단**(비대면 진료), **AI 기반 진단 시스템** 및 **모바일 헬스케어** 등 핵심분야별 품목 및 서비스를 결합한 진출 패키지를 구성하여 집중 지원

< 핵심분야별 품목 예 >



○ **(시범사업) ICT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확대**를 위해 **시범사업 지원**

- 진출 지역·국가의 **시장 수요와 ICT 관련 지원정책**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평가 우수기관은 **다년도(1+1) 지원**으로 **사업 연속성 제고**

<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시범사업(2023) >

기관명	대상국	세부사업명
㈜루닛 용인세브란스병원	싱가포르	· (루닛) 3D유방암검진 AI 솔루션 + (용인세브란스병원) 현지병원 운영 컨설팅 + (싱가포르) 국가 AI 플랫폼 구축 사업 · 국가 유방암 검진사업 진출을 위한 현지 임상검증 및 레퍼런스 구축
㈜하이젠헬스케어 원광대병원	사우디	· (하이젠) 통합응급의료시스템 + (원광대병원) 응급관리 가이드라인, 응급실 진료프로세스 지원 + (사우디) 스마트시티 내 병원 구축 · 텔레-트리아지 기반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시범사업
㈜에스에스엘 고대의료원	캄보디아	· (에스에스엘) 병원정보시스템(HIS) + (고대의료원) 현지병원 교육, 매뉴얼 개발 + (캄보디아) ICT 산업 리더십 프로젝트 · 캄보디아 국립 모자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
이대목동병원 ㈜ 퍼스트디스	우즈벡	· (이대목동병원) DUR 기반 항생제 처방 지원 시스템 설계 + (퍼스트디스) 항생제 성분식별체계 구축 및 모듈개발 + (우즈벡) 국립병원 등 항생제 처방 지원 시스템 구축 · 우즈벡 환자 안전을 위한 항생제 처방 지원 및 약제관리 모듈형 시스템 시범사업

□ **(실증지원) 유망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진출**을 위해 북미 등 **해외 주요 의료기관**과 **유효성 검증** 등 **실증지원 사업*** 신설**[복지부]**

*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서비스 등 유망 기업에게 실증비용 지원(1~1.5억 원)

** (성공사례) '22년 국내 스마트청진기 기업 美국방성 해외실증 연계 및 성능확인서 발급(공신력 높은 기관의 수출 레퍼런스 구축 성과)

□ **(우수기업 인증)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***를 도입하고, **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**에게 **가산점 부여** 추진**[산업부]**

* (혜택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, 공공기관 우선구매,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

◇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 교류 · 협력 강화[복지부]

□ **(정부 간 협력 강화)**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**네트워크 구축**을 통한 **의료 해외진출 기반 마련** 및 **국가별 진출전략 수립***

* 중점협력국(베트남, UAE, 사우디 등)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 진출 전략 수립('23.下~)

○ 주요국 중심 **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갱신*** 등을 통해 **중대형 프로젝트 발굴, 사업화 지원****

* (MOU) 인도네이사, 베트남, 태국 보건의료 협력 MOU, 한-우즈벡 e-Health 행동계획 연장체결('22.11월), UAE 양국 간 의료관광 분야 교류 및 기술지원 관련 MOU('20.1월)

** (사례) 서울대병원-UAE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('14.8월~'24.8월) 등

□ **(거점공관 협력사업)** 주요국 **거점공관**을 선정, **보건의료분야 협력 포럼·수출상담회 등을 개최**하여 **한국의료 홍보** 및 **수출 기회 제공***

* '23년 총 12개국(14개 공관)에서 협력사업 추진, 공관당 최대 40백만원 지원

□ **(유관기관 협력 확대)** **국제보건의료재단**과 협력하여 **ODA 사업**을 통해 '의료기관+의약품·의료기기·의료시스템' **동반진출 선도사업 발굴***

* △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ODA 디렉토리북 사업화 지원(방글라데시), △아세안 7개국(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)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('23~)

Ⅴ.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**원활한 대책 추진**을 위해 **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 협의**

- 진출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**현장 의견수렴**을 통해 「**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**」 마련

○ 과제별 **관리카드 마련**을 통해 **과제 지속 추진**

□ 추진 일정

추진과제			관계부처	일정
전략 1.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				
1-1.	**출입구절차 개선**			
		우수 유치기관 확대	법무부	'23.下~
		일반 유치기관 비자 쿼터 상향		'23.下~
		동반자(간병인·보호자) 제한 완화		'23.下~
		신속발급 지원		'23.下~
1-2.	**지역·진료과목 편중 완화**			
		지자체 특화 의료·관광	복지부, 문체부	'23.下~
		고부가가치 환자 타게팅 모델 발굴	복지부	'23.下
		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	복지부	'23.下
		유치 진료분야 다양화	복지부	'23.下~
1-3.	**유치산업 경쟁력 강화**			
		평가·인증제 활성화	복지부	'23.下~
		전담 간병인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	복지부	'24~
		원스톱 지원 강화	복지부, 문체부	'23.下~
		ICT 기반 사전상담·사후관리 확대	복지부	'23.下~
1-4.	**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**			
		K-Culture 활용 홍보 확대	복지부, 문체부	'23.下~
		나눔의료,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 등 위상 강화	복지부	'23.下~

전략 2. 우수한 K-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			
2-1.	**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**		
	신고제 개선	복지부	’23.下~
	K-헬스케어 마크 부여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		’24~
	보건계정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 확대		’23.下~
2-2.	**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**		
	진출지원 플랫폼 운영	복지부	’24~
	수요 맞춤형 인력양성·지원		’23.下~
	동반진출 확대		’23.下~
2-3.	**ICT 기반 K-의료서비스 수출 촉진**		
	ICT 의료시스템 수출	복지부	’23.下~
	디지털헬스케어 실증지원		’23.下~
	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	산업부	’24~
2-4.	**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 교류·협력 강화**		
	정부 간 협력 강화	복지부	’23.下~
	거점공관 협력사업 추진		’23.下~
	유관기관 협력 확대		’23.下~